

# 현대중국어의 기시상(起始相) 표지 ‘起來<sub>2</sub>’\*

申景嫻\*\*

## <목 차>

1. 서론
2. ‘起來<sub>1</sub>’에서 ‘起來<sub>2</sub>’로의 문법화 과정
3. ‘起來<sub>2</sub>’의 문법적 의미
4. ‘下來/下去’와의 대조를 통한 ‘起來<sub>2</sub>’의 시간범위
5. 결론

## 1. 서론

현대중국어에서 복합방향동사 ‘起來’는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갖는 술어동사이다. 이것은 다른 복합방향동사들과 마찬가지로 술어 동사 뒤에 첨가되어 ‘V起來’ 구조로 복합방향보어의 역할을 한다. 이 ‘V起來’ 구조는 사용빈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용법 또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하지만 기존의 학자들은 구조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V起來’ 구조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방향의미를 포함하여 적게는 세 종류 많게는 다섯 종류로 나누어 ‘V起來’ 구조를 설명한다.<sup>1)</sup> 이와 같이 ‘V起來’ 구조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은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여러 학자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V起來’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10년도 고려대학교BK21중일언어문화교육연구단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박사과정.

첫 번째는 복합방향동사 '起來'가 술어동사 뒤에 첨가되어 원형적 의미로 방향보어 기능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작', '완성·결과', '지속'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이 가운데서 시작의미는 기시상(起始相, inchoative aspect)표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화자의 주관적 견해를 나타내어 담화표지 기능을 하는 것이다. 방향보어의 의미는 '起來<sub>1</sub>', 기시상은 '起來<sub>2</sub>', '담화표지기능은 起來<sub>3</sub>'이라 하겠다.<sup>2)</sup>

- (1) 他六點就起來了。(동사)  
그는 여섯시가 되자마자 일어났다.  
呂叔湘(1980/2007:441-442)
- (2) “你亂講甚麼?”文婷婷衝動地站起來。(起來<sub>1</sub>)  
“당신 뭐라고 지껄이는 거야?” 文婷婷은 발끈해서 일어섰다.  
戴耀晶(1997:95)
- (3) 坐在他身邊的Liu Xiaoqing哈哈大笑起來。(起來<sub>2</sub>)  
그의 옆에 앉아 있는 Liu Xiaoqing은 하하 크게 웃기 시작했다.  
Xiao&McEnergy(2004:217)
- (4) 算起來, 他離開已經三年了。(起來<sub>3</sub>)  
계산해보니, 그가 떠난 지 이미 3년이 되었구나.  
(북경대 코퍼스)

위와 같은 'V起來'의 세 가지 구조 중에서 본고에서는 두 번째 의미, 즉 '상적 의미'로 기시상(inchoative aspect)표지 기능을 하는 '起來<sub>2</sub>'만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아래에서는 이것이 현대중국어에서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이것이 나타내는 시간 범위를 다른 상표지들과의 비

1)

	1	2	3	4	5	6
	방향 의미	결과 의미	상태 의미	시작 의미	지속 의미	삼입구 · 관용어
劉月華(2001/2006)	✓	✓	✓			
呂叔湘(1980/2007)	✓	✓		✓	✓	✓
吳潔敏(1984)	✓		✓			✓
戴耀晶(1997)	✓	✓	✓	✓		✓

2) 이들 'V起來' 구조에 대한 분류는 최규발(2008)에 따른 것이다.

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起來<sub>1</sub>’에서 ‘起來<sub>2</sub>’로의 문법화 과정

‘起來<sub>2</sub>’는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 중 약간의 이동 의미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여전히 방향보어 ‘起來<sub>1</sub>’의 파생용법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起來<sub>1</sub>’과 분리를 시켜 하나의 상표지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起來<sub>2</sub>’를 상표지로 간주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V起來’에 이동 의미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근거로 하여 시작이나 지속 등과 같은 의미는 파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戴耀晶(1997)과 같은 학자들은 ‘V起來’가 다른 상표지와 같이 고도로 문법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문법적 상표지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중국어에서 이미 문법화가 되어 상표지 기능을 하는 경험상 표지 ‘過’의 의미확장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V起來’도 상표지로 여기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상표지 ‘過’도 이동동사에서 문법화 되었고, 이동동사로서의 용법, 방향보어로서의 용법, 결과보어로서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지만, ‘過’는 여전히 상표지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규발(2008)에서도 이러한 ‘起來<sub>2</sub>’가 시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은 먼저 동사 ‘起’의 동사적 특징, 다시 말해 동사 ‘起’가 갖고 있는 ‘일어나다’의 의미 외에 ‘발생하다’, ‘(작용을) 일으키다’,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 특징에서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속’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원인도 ‘시작’을 나타내는 ‘起’와 시작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來’가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起來<sub>2</sub>’는 방향의 의미를 갖는 ‘起來<sub>1</sub>’의 의미 확장을 통해 시간의미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起來<sub>1</sub>’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起來<sub>2</sub>’가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려한다.

먼저 ‘起來<sub>2</sub>’의 이전 단계인 ‘起來<sub>1</sub>’의 의미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이것과 공기하는 동사들을 조사해 보았다.

<표 2-1> ‘起來<sub>1</sub>’과 결합하는 동사들

동사	부류
揚	a
浮	a
爬	a
飛	a
漂	a
竄	a
舉	b
擡	b
撐	b
拉	b
拔	b
背	b
扶	b
揭	b
拿	b
扯	b
攙	b
擔	b
釣	b
端	b
挑	b
繳	b
捧	b
提	b
撩	b
托	b
拖	b
站	c
仰	c
翹	c
立	c

(검색출처 <http://ccl.pku.edu.cn>)

위의 <표 2-1>에서 ‘起來<sub>1</sub>’과 공기하는 동사들을 그 특징에 따라 전형적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a’류, 행위자가 아닌 대상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b’류, 유사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c’류로 분류하였다.

(5) a류

a. 天亮的時候, 野鴨都飛起來了。(a류)

날이 밝았을 때, 오리들은 모두 날아올랐다.

날이 밝았을 때, 오리들은 모두 날기 시작했다.

(북경대 코퍼스)

(6) b류

a. 他把這可憐的錶檢起來。

그는 이 애처로운 시계를 주웠다.

b. 老頭兒把小罐兒捧起來, 看了看罐底兒上的價碼。

노인은 작은 강통을 (받쳐)들어올려, 강통 밑에 가격을 보았다.

(북경대 코퍼스)

(7) c류

a. 老太太生氣地站起來。

노부인은 화를 내며 일어섰다. 王朔, 《我是你爸爸》

b. 頭髮嚇得都立起來了。

놀라서 머리카락이 모두 곤두섰다. 王朔, 《看上去很美》

먼저 c부류에서 ‘起來’는 방향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사자체가 상향만을 나타낼 수 있어서 의미적으로 보면 반드시 ‘起來’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c부류의 동사들은 순간적인 자세변화를 나타내며 이는 ‘起來<sub>0</sub>’<sup>3)</sup>의 상적인 특징과도 부합한다. 즉 ‘起來’의 원형적 쓰임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b류의 동사들은 주로 상향이동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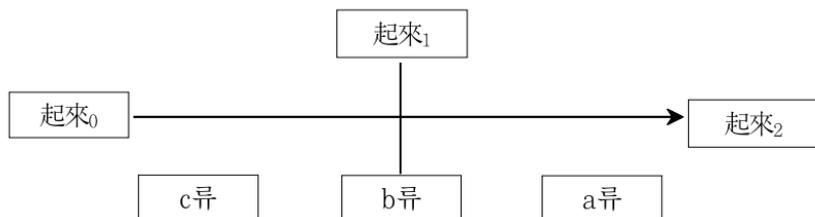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a류의 경우 ‘揚’, ‘飛’, ‘竄’은 ‘起來’와 결합하였을 때 중의성이 드러나서 ‘起來<sub>1</sub>’ 혹은 ‘起來<sub>2</sub>’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起來’는 점차 시간적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공시적인 관점에서 ‘起來<sub>1</sub>’과 공기하는 동사들을 살펴본 결과 ‘起來<sub>1</sub>’에서 ‘起來<sub>2</sub>’로의 문법화 과정은 ‘c류와의 공기 > b류와의 공기 > a류와의 공기’의 순서를 거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순서는 문법화 기계 중 일반화<sup>4)</sup>

3) ‘起來<sub>0</sub>’은 술어동사로 사용되는 복합방향동사를 말한다.

원리에 부합한다. ‘起來<sub>1</sub>’과 결합하는 동사들을 이동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a, b, c 세 부류로 나누어 보았을 때 ‘起來<sub>0</sub>’에서 가장 가까운 의미를 나타내는 ‘起來<sub>1</sub>’은 비전형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c류와 가장 잘 어울렸고, 이동 방향을 나타내는 ‘起來<sub>1</sub>’은 사역적 이동을 나타내는 b류와 가장 잘 어울렸으며, 이동 방향과 시작의 의미가 모두 드러나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起來<sub>1</sub>’에는 전형적 이동 동사인 a류와 가장 잘 어울렸다. ‘起來<sub>1</sub>’이 ‘起來<sub>2</sub>’로 가는 일반화(Generalization) 과정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起來<sub>1</sub>’이 ‘起來<sub>2</sub>’로 가는 일반화(Generalization) 과정



그렇다면 위의 <그림 2-1>과 같은 일반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起來<sub>2</sub>’가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는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3. ‘起來<sub>2</sub>’의 문법적 의미

위의 일반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起來<sub>2</sub>’가 갖고 있는 상적 의미로는 시작,

- 4) 일반화(Generalization)란 어휘소의 의미가 점점 특수성을 잃어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 변화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일반화는 Byee&Pagliuca(1995:63)에서 제시했듯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의미의 특수성이 적을수록 그 해당 어휘소가 쓰일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것이 쓰이는 분포가 넓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라 할 수 있고, 둘째는 그 어휘소의 의미 자질이 특수 자질들이 적다는 점에서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의미는 감소되고 기능은 증가되는 이중적인 현상이다. 이성하(1998:258)

지속, 상태, 결과·완성 등이 있다. 즉 ‘起來<sub>2</sub>’는 이미 이동의 의미가 사라지고 시간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이러한 ‘起來<sub>2</sub>’의 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Chao(1968)는 ‘起來’가 복합동사와 복합방향보어 이외에 상접사로도 쓰이며, 아래와 같이 시작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 (8) a. 他們玩着, 忽然哭起來了。  
그들은 놀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b. 那回事情, 你一提起來我就生氣。  
그 일을 당신이 끄집어내기만 하면 나는 화가 난다.

Chao(1968:251)

마찬가지로 戴耀晶(1997)도 ‘起來<sub>2</sub>’가 비록 기타 상표지 ‘了’, ‘着’, ‘過’에 비해 문법화의 정도는 약하지만 독립된 상표지로 볼 수 있다고 하며 아래와 같이 ‘V起來<sub>2</sub>’ 구조의 예문을 제시하였다.

- (9) a. 巧珍說着, 淚水已經在眼眶裏旋轉起來。(시작)  
巧珍이 말하면서, 눈물이 이미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다.  
b. 她望着鏡中的自己, 莫名其妙地高興起來。(시작·지속)  
그녀는 거울안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유도 없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c. 噢, 這事情我想起來了。(결과)  
아, 이 일이 생각났다.

戴耀晶(1997:95)

戴耀晶(1997)은 위의 예문(9a), (9b)에서 ‘起來<sub>2</sub>’가 기시상 표지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起來<sub>2</sub>’는 사건의 시작을 나타내며, 동태적 변화를 표시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끝임 없이 연속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戴耀晶(1997)의 기시상에 대한 설명은 활동동사 및 일부 상태동사와 결합하여 시작, 지속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만을 취하고 있어 상표지 ‘起來<sub>2</sub>’의 의미를 전면적으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즉 (9c)와 같은 문장에서의 결과의미는 어디에 속하

는지 설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Xiao & McEnergy(2004)에서도 ‘起來’가 첫째, 방향동사로 상향이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두 번째로 결과 보어로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며, 세 번째로 활동의 완결성(completeness) 혹은 영향성(effectiveness)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상황의 시작을 나타내는 상표지 역할(기시상, inceptive aspect)을 한다고 하였다. 이 중에서도 엄밀하게 시작의미를 나타내는 것만을 관점상표지로 여겼다. 즉 결과성이나 완결성, 영향성은 관점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아래는 이들이 제시한 각각의 예문들이다.

- (10) a. Lu Zhensheng激動得站立起來。(방향)  
Lu Zhensheng은 흥분해서 일어섰다.
  - b. 越發把自己的感情包裹起來。(결과)  
더욱 자신의 감정을 감추었다.
  - c. 歸納起來，猶以以下慢性疾病爲多見。(완결성·영향성)  
귀납하자면, 여전히 아래와 같은 만성질병이 흔히 보인다.
  - d. 坐在他身邊的Liu Xiaoqing哈哈大笑起來。(시작)  
그의 옆에 앉아 있는 Liu Xiaoqing은 하하 크게 웃기 시작했다.
- Xiao&McEnergy(2004:217)

하지만 이들이 제시한 시작상 표지의 상황유형 분포표를 보면 21개의 예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활동유형이며 6개가 개체성상태(ILS)유형에 속한다.<sup>5)</sup> 이는 Xiao&McEnergy(2004)가 戴耀晶(1997)과 마찬가지로 시작의미를 도출해 내기 위해 일부 상황유형에만 제한하여 분석한 오류를 범했음을 말해

5) 분포표는 다음과 같다.

기시상 표지 ‘起來’의 분포

Corpus	ILS	SLS	ACT	SEM	ACC	Total
Training	4	2	11	1	1	19
Test	2	0	0	0	0	2
Total	6	2	11	1	1	21

준다. 즉 (10b), (10c)와 같이 다른 유형과 결합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 완성 등의 의미를 상적 의미에서 배제한 것이다. 만약 ‘起來<sub>2</sub>’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법상 표지로 간주된다면 그 쓰임이 단 두 개의 상황유형에만 제한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문법화에서 문법화된 항목은 일반화를 통해 사용 분포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Xiao & McEnery(2004)가 시작상 표지 ‘起來<sub>2</sub>’의 예로 제시한 문장 가운데 ‘性感起來’나 ‘躊躇起來’에서는 한 형태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중의성(ambiguity)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이들의 의미는 ‘섹시해졌다’와 ‘섹시해지기 시작했다’, ‘주저했다’와 ‘주저하기 시작했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중의성이 나타나면 원인으로 첫 번째로, ‘起來<sub>2</sub>’ 자체의 의미로 인한 것, 두 번째로 동사의 의미로 인한 것, 마지막으로 ‘起來<sub>2</sub>’와 동사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일 수 있다.

최규발(2008)에서는 ‘起來<sub>2</sub>’가 ‘起來<sub>1</sub>’에서의 ‘起’의 의미 확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갖는 의미는 ‘출발점에 서다’, ‘시작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또한 자세가 바뀌는 위치의 변화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고, 여기에 결과상태 부각의 ‘來’가 부가되어 ‘V起來<sub>2</sub>’는 ‘이미 발생한 상태변화나 결과가 지속됨’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起來<sub>1</sub>’의 문법적 의미를 기초로 하고, 또한 위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초보적으로 ‘起來<sub>2</sub>’의 문법적 의미를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1> ‘起來<sub>2</sub>’의 문법적 의미



위의 <그림 3-1>에서 알 수 있듯이  $t_0$ 에서  $t_1$ 로의 변화(즉, 상황의 시작)는 순간적이다.  $t_1$ 에서 나타난 상황의 시작은 0상태에서 1상태로의 변화이기도 하다. 활동동사의 경우 동작의 시작을 나타내게 될 것이고, 상태동사의 경우 상태의 출현을 나타낼 것이며,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起來<sub>2</sub>’의 문법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起來<sub>2</sub>’ 자체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존재하는 동사와의 상호작용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 4. ‘下來/下去’와의 대조를 통한 ‘起來<sub>2</sub>’의 시간범위

앞서 기시상 표지 ‘起來<sub>2</sub>’가 갖고 있는 문법적 의미는 시작의 의미와 함께 지속, 완성·결과 의미를 갖는다 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기시상 표지 ‘起來<sub>2</sub>’가 나타내는 내적 시간 범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Comrie(1976:3)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은 장면의 내적이 시간적 구성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이다. 즉, 이것은 어떤 상황의 시간을 일정한 시간적인 위치에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내부적인 시간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적 의미들은 내적 시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起來<sub>2</sub>’와 ‘V下來’, ‘V下去’를 비교 분석하여 ‘起來<sub>2</sub>’의 내적 시간 범위를 알아보려 한다. 龔千炎(2000)과 같은 학자들에 따르면 ‘V下來’, ‘V下去’는 ‘起來<sub>2</sub>’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방향 이동의 의미 기능 이외에도 상적 의미인 진행상 표지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또한 張國憲(1999), 盧英順(1999)도 ‘V下來’, ‘V下去’를 하나의 상표지로 보고 연구하였다. 이들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아마도 뒤의 ‘來/去’가 때로는 시간적으로 [+durative]를 부가

6) 하지만 龔千炎(2000)은 ‘V下來’와 ‘V下去’도 ‘V起來’와 마찬가지로 상표지로서 확정되었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起來<sub>2</sub>'가 나타내는 시간 범위를 정확히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본 절에서는 '起來<sub>2</sub>'를 사용한 문장이나 언어 환경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범위를 조금이나마 가늠해 보려한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사한 표현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다 생각된다.

먼저 복합방향동사 혹은 복합방향보어로서 '下來', '下去'가 갖고 있는 기본 의미는 방향의 의미이다.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 (11) a. 他從山上慢慢地走下來。  
그는 산 위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왔다.  
b. 他從山上慢慢地走下去。  
그는 산 위에서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따라서 이들은 '起來'와 반대방향으로의 이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 예문 (12)에서 '落下去'는 '昇起來'와 대를 이룬다.

- (12) 太陽每天從東方昇起來, 又在西方落下去。  
태양은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위와 같은 '下來'와 '下去'는 현대중국어에서 문법화의 과정을 통해 시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高順全(2001)에서는 '下來', '下去'의 문법화 과정은 하향이동을 나타내는 기본 의미에서 횡적 운동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 점차 방향의 의미를 잃어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sup>7)</sup> 이들이 시간적 의미를 나타낼 때, 즉 하나의 독립된 보어 역할을 할 때에는 '起來<sub>2</sub>'와 마찬가지로 앞의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7) 하지만 高順全(2001)에서는 단지 'V下來', 'V下去' 자체만이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시간을 나타내는 요소들과 함께 나타날 때 이들의 시간적 의미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다.<sup>8)</sup> 즉 ‘지속’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들을 보자.

(13) a. 弟弟天真地唱起來了。

남동생은 천진난만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b. 所有參加長跑的人都堅持下來了。

장거리 경보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 견뎌내고 있다.

c. 幾個哥們打了半天牌，吃了宵夜，又繼續下去了。

몇 명의 남자들은 한참동안 카드를 치고, 야식을 먹고 난 후, 또 계속해서 카드를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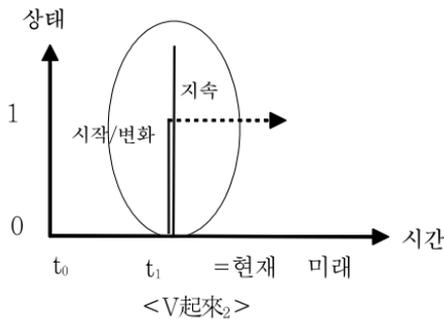
위의 예문(13)에서와 같이 이들 모두 ‘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지속 상태가 되기 전 출발점의 차이이다. 다시 말해 ‘下來’, ‘下去’는 사건 내부의 지속만을 나타내어 ‘起來’와 같이 사건의 ‘시작’과 ‘변화’를 나타낼 수가 없다. ‘下來’는 어떠한 과거시점부터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下去’는 현재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또한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을 암시한다. 張國憲(1999)에서도 ‘下來/下去’를 상표지로 여겼는데, 그는 시간구조상 ‘下來’는 지속을 나타내지만 과거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고, 종결점(終止點)은 나타낼 수 있지만, 시작점은 나타낼 수 없다 하였다. ‘下去’는 역시 현재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고 미래 지속에 대한 암시는 있지만, 시작점과 종결점은 나타낼 수 없다 하였다.<sup>9)</sup> 예를 들어 예문(13b)는 과거에 어떠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온 일을 현재까지 ‘견뎌’내고 있음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下來’를 사용할 경우에는 ‘起來’와 같은 ‘시작’을 나타내는 기점은 청자가 인지할 수 없다. 또한 예문(13c)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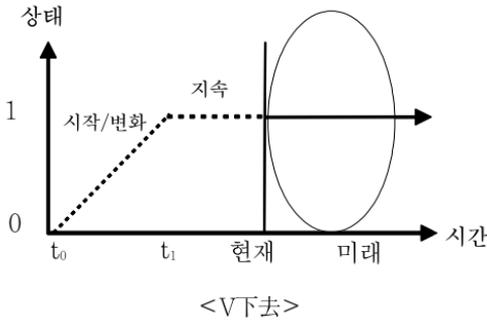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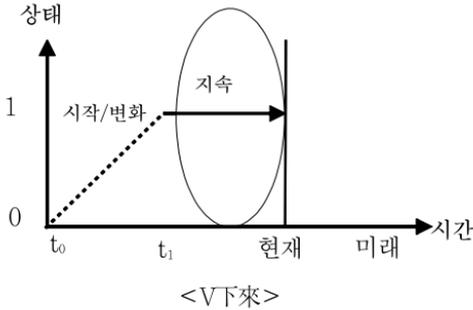
8) 徐靜茜(1985)에서는 이러한 보어는 중국어에서 ‘起來, 下來, 下去, 上來’ 네 가지가 있다 하였으며, 吳潔敏(1984)에서는 ‘大型, 高級’ 등과 같은 비술어형용사(非謂形容詞)와 ‘故意, 恰好, 湊巧’ 등 일부 형용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일반 형용사는 ‘起來와 결합하여 상태 변화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다 하였다.

9) 따라서 張國憲(1999)에서는 ‘下來’는 ‘새로운 어떠한 상황의 지속(某種新狀態的繼續)’를 나타내고, ‘下去’는 ‘이미 있었던 어떠한 상황의 지속(某種已有狀態的繼續)’를 나타낸다 하였다.

야식을 먹고 난 후, 어느 순간부터 카드를 또 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카드를 치는’ 행동이 지속될 것임을 나타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下去’는 ‘起來<sub>2</sub>’와 같이 시작과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下來’, ‘下去’는 동작이나 상태의 시작을 인식하는 인식시(認識時)의 범위가 ‘起來<sub>2</sub>’와 다르기 때문이다. 인식시(認識時)란 사태나 사실을 화자가 인식하는 시점을 말한다. 어떤 사태나 사실을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사건을 목격하여 인식하는 방법과 추리나 관찰 등을 통해 사실을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건이나 사실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의 인식시는 각각 사태를 목격한 시점, 추리나 관찰을 통해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시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어 사태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말한다(이재성, 2001).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起來<sub>2</sub>’는 ‘下來’와의 비교에서는 과거의 지속을 나타낼 수 없고, ‘下去’와의 비교에서는 ‘시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나타내는 시간의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4-1> ‘起來<sub>2</sub>’와 ‘下來’, ‘下去’의 시간범위





위의 <그림 4-1>에 대하여 정리하자면, 타원영역 내부가 바로 이들이 나타내는 시간범위이자, 인식시의 범위가 된다. 여기서의 '起來<sub>2</sub>'는 그 앞의 동작이나 상태의 시작과 변화를 인식하는 매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현재 상황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미래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암시는 나타내지 못한다. 다음으로 '下來'는 화자나 청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재 이전의 어떠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지속을 나타내고, 마지막으로 '下去'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지속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과거에 위치한 '下去' 앞의 동작이나 상태의 지속은 결여되어있다. 이와 같이 이들은 현대 중국어에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지속'을 표현하지만, 그들이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의 범위는 분명 차이가 있으며, 언어 환경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시간범위에 따라 반드시 구별하여 써야만 한다.

## 4. 결론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V起來’가 나타내는 ‘방향의미(起來<sub>1</sub>)’, ‘상적의미(起來<sub>2</sub>)’, ‘담화적의미(起來<sub>3</sub>)’ 중, 상적의미를 나타내는 ‘起來<sub>2</sub>’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이것은 먼저 그 이전 단계인 ‘起來<sub>1</sub>’에서의 일반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이것의 문법적 의미에 대해서 기존학자들은 시작과 지속의 의미만을 도출해내어 분석을 하였다. 따라서 몇몇 문장에서 중의성이 드러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起來<sub>2</sub>가 시작과 지속의 의미 외에도 완성 혹은 결과의 의미도 갖고 있음을 위의 학자들이 인용한 예문들을 분석하여 설명하였고, 결과적으로 ‘起來<sub>2</sub>’가 나타내는 상적의미로는 ‘시작, 지속, 상태, 결과·완성’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起來<sub>2</sub>’가 갖고 있는 문법적 의미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起來<sub>2</sub>’ 앞의 동사와의 관계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起來<sub>2</sub>’의 내적 시간 범위를 가늠해 보기 위하여 동일한 구조를 갖고, 마찬가지로 상적 의미인 진행상 표지화 되고 있는 ‘下來’, ‘下去’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은 모두 동일하게 ‘지속’의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이들이 나타내는 내적 시간 범위의 차이는 인식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구별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 參考文獻 >

- 김종도(1992), 「우리말의 상 연구」, 『畿甸語文學』, 제7집.  
 \_\_\_\_\_(2002), 『인지문법의 디딤돌』, 박이정.  
 박덕유(2007), 『한국어의 相 이해』, 제이앤씨.  
 박종한(1996), 「인지문법에 의한 현대중국어 다의어 연구」, 『중국어언어연구』, 제5집.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은수(2003), 『현대 중국어 상 표지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성(2001), 『한국어의 시제와 상』, 서울: 국학자료원.
- 정운철(2004), 「중국어 '來'와 '去'의 의미 확장 양상 고찰」, 『중국어학연구』, 제23집.
- 최규발(2008), 「방향보어의 문법적 의미」, 『中國學論叢』, 제24집.
- 최규발·정지수(2007), 「중국어 상 표지 '過'의 의미, 통사적 특징과 부정 현상」, 『中國人文學』, 제37집.
- 최병덕(2002), 「현대중국어 복합방향보어 '下來」, 『인문학지』, 제25집.
- 陳明舒(2004), 「從隱喻途徑和虛化程度來考察(V/A)+下來下去的語義系統」, 『中國語文學』, 제43집.
- \_\_\_\_\_ (2005), 「補語 '上, 下, 起來'의 의미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허성도·陳明舒(2004), 「補語 '起來' 기능 연구」, 『中國語文學誌』, 제16집.
- 陳前瑞(2003), 《漢語體貌系統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戴耀晶(1997), 《現代漢語時體系統研究》, 杭州, 浙江教育出版社.
- 高順全(2001), <體標記"下來", "下去"補議>, 《漢語學習》, 1期.
- \_\_\_\_\_ (2005), <複合趨向補語引伸用法的語義解釋>, 《漢語學習》, 1期.
- 龔千炎(1995), 《漢語的時相, 時制, 時態》, 北京: 商務印書館.
- 劉月華(1998/2008), 《趨向補語通釋》, 北京: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 \_\_\_\_\_ (2001), 《實用現代漢語語法》, 최규발 외 옮김(2005), 《실용현대한어어법》, 송산출판사.
- 宋玉柱(1980), <說"起來"及與之有關的一種句式>, 《語言教學與研究》, 1期.
- 徐靜茜(1985), <也論"下來", "下去"的引伸用法>, 《漢語學習》, 4期.
- 張國憲(1999), <延續性形容詞的續段結構及其體表現>, 《中國語文》, 3期.
- Bull, W.(1971), Time, Tense and The Verb, *A study in theoretical and Applied Linguistic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Spanis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harles N. Li & Sandra A. Thompson(1981), *Mandarin Chinese*, 박정구 외 옮김(2001), 『표준 중국어 문법』, 한울아카데미.
- Chao, Yuan Ren(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td.; 丁邦新 譯(2002), 《中國話的文法》(增訂版), Hong Kong: 中文大學出版社.
- Comrie, Bernard(1976), *Aspect*, 이철수·박덕유 옮김(1998), 『동사 상의 이해』, 한

신문회사.

- Hopper, P. & Traugott, E.(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Catolita(1991), *The Aspectual System of Mandarin Chinese,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_\_\_\_\_ (1994), *Aspectual Viewpoint and Situation Type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3*.
- Suying Yang(1995), *The Aspectual system of Chinese*, M.A., Anhui University.
- Bernard
- Xiao, Zhonghua & McEnery, Anthony(2004), *A corpus-based Two-level model of situation aspect, Journal of Linguistics 40*.
- \_\_\_\_\_ (2004), *Aspect in Mandarin Chinese*,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 中文提要 >

現代漢語“V起來”結構大體上可以分爲三類：第一類，表示趨向意義(起來<sub>1</sub>)，第二類，表示起始體(起來<sub>2</sub>)，第三類，表示篇章用法(起來<sub>3</sub>)。本文集中討論的是表示起始體意義的“V起來”(即“起來<sub>2</sub>”)結構。首先我們看到了它的語法化的過程。它的語法化的機制就是泛化現象。

而一直以來有意見認爲“V起來<sub>2</sub>”只表示時間上的“開始”與“持續”，但事實上，我們發現它除了表開始與持續的意義以外，還可以表示“狀態”與“結果·完成”。因爲“V起來<sub>2</sub>”的意義與其前面動詞的意義密切相關。關於這一點，文中通過圖示進行了詳細說明。

本文又通過將“V起來<sub>2</sub>”與“下來”、“下去”作比較，進一步說明了它們的內部觀察時間的範圍。三者都表示持續，但在認識時上它們却存在差異。“V起來<sub>2</sub>”表示事件已經起始并將延續下去；“下來”表示事件在過去的某一點上開始，到現在還持續着，但却不能表現出仍將延續；而“下去”則蘊涵着事件已持續了一段時間，且可以預測到仍將延續。因此，辨清它們各自所表示的時間範圍并務必做到區分使用就顯得格外重要。

關鍵詞：V起來，“V起來<sub>2</sub>”的語法化，起始體“V起來<sub>2</sub>”，“V起來<sub>2</sub>”的時間範圍，下來/下去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0. 3. 31	2010. 4. 30	2010. 5. 6	2010. 5. 7	2010. 5. 31